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전지적 시점을 향한 욕망에 대하여

존재의 능력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전지적 능력에 대한 욕망에 우리는 쉽게 지배되면서, 열심히 전지적 시점의 주류 언어를 사용한다.

신화의 제우스 신 정도라면 전지적 시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 제우스는 아버지로부터 빼앗은 권력으로 올림포스 12신의 왕 노릇을 하는 위치에 올랐다. 번개를 무기로 사용하며 아무 때나 원하는 모습으로 변신하는 신이다. 하지만 제우스는 알려진 것과는 달리 현명하고 공명정대하게 행동하려고 애쓰며 늘 세상 돌아가는 일을 세심하게 살폈다. 고전 '일리아스'에 나오는 이야기다. 제우스는 늘 눈과 귀를 열어두고 있어서 세상 일을 먼저 알았다. 어느 날 제우스는 트로이 전쟁에 나간 자신의 아들이 곧 죽음을 맞게 될 것을 알게 된다. 자식의 죽음은 사람에게만 고통이 아니고 신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괴로워하던 제우스는 결국 헤라에게 고통을 털어놓는다. 사실 제우스는 조용히 아들을 얼마든지 살릴 능력이 있고, 또 그렇게 한들 감히 누가 비난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제우스는 헤라에게 물었고 헤라는 최고의 신이면 지켜야 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행동하라고 냉정하게 조언한다. 그리고 헤라는 아무리 제우스 아들이지만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제우스는 왜 굳이 헤라에게 물었을까? 죽음을 앞둔 아들은 헤라와의 사이에 태어난 것도 아니다. 제우스는 정말 혼자서 판단할 수 없었을까? 아니면 사실은 자신의 절대권력으로 아들을 살려내서는 안 된다

는 판단을 내린 후에 헤라에게 묻는 것일까? 헤라에게 직접 자신의 막강한 힘이 사사롭게 쓰여서는 안 되는 것을 다짐받고 싶은 것이었을까? 결국 제우스는 늘 사람이 좋기만 한 것도 아닌 헤라의 말을 수용하고, 아들은 죽는다. 적어도 이 대목에서 제우스는 전지적 시점과 능력을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다.

사실 엄밀하게 보면 전지적 시점은 절대적 힘을 가진 우월적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시선이자 태도다. 다시 말하면 옳고 그름을 좌우하는 결정권을 행사하는 힘이다. 예를 들면 중요한 것을 판단하는 권력자와 권위자의 시선, 전문가의 시선, 강자의 시선 등이 현실적 일상에서 전지적 시점으로 행세한다. 하지만 전지적이라고 해서 전능한 것이 아니고, 전지와 전능은 서로를 보완해야 한다. "그렇게 될 줄 이미 알고 있었다", "아직도 그것을 몰랐더니, 바보군" 등의 전지적 시선만으로는 변화하는 것은 없다.

최근 한 외국 작가가 한국에서 한 경험을 담은 영상에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나라를 여행했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온갖 다양한 화려함과 최신의 기술문명, 세계가 주목한다는 고급의 소비시장 등, 이 모든 정보가 넘쳐도 여전히 '주류'에 속하지 못하거나, 억압과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원인으로 봤다. 제우스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전지적, 전능의 힘을 가졌지만 쓰지 않았다. 타인에 의해서 강제된 비주류의 삶에 대한 제우스적 고민과 결단이 절실하지 않은가?

수필의 향기



박용수
수필가

견담과 인생

아니다. 아주 작은 생리적인 것들도 견뎌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급하게 화장실에 갔는데 칸칸이 사람이 들어있을 때, 견담은 견뎌야 순전히 고통이고 괴로움이 된다.

"삶은 그렇게 그냥 견디는 것이다." 다소 식상한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여러 번 곱씹어 본다. 지극히도 평범한 성찰 같지만 씹을수록 맛깔난 통찰이다. 주변을 돌아보면 잘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잘 견뎌낸 사람들이다. 아니 잘 견뎌낸 사람이 잘 사는 사람들이다.

내 앞에 놓인 책 한 권, 삶은 그냥 견디는 것이다. 제목만 보고 책 한 권을 읽은 느낌이였다. 50대 후반의 박사 학위를 받은 작가가 내린 결론 '견담' 그도 생이 온통 견뎌내었던 모양이다.

지금까지 내 삶도 우리 역사도 온통 견뎌내어왔을까. 진학하기 위해 견뎌내고, 야간 학습, 대학입시, 취업, 전역, 퇴직까지 어느 한순간도 견디지 않았던 때가 없었던 것 같다. 수많은 외침도 견뎌내고, 흥남과 역병도 견뎌냈다. 주사약이 들어갈 때 통증을 견디고, 퇴원할 때까지 고통도 견디고, 싸이날 때까지 기다리고, 꽃 필 때까지 지켜보며, 익을 때까지 버틴다. 비와 바람을 맞고, 햇살과 가뭄을 이겨내야만 열매를 맺는다.

식욕도 견디고, 그리움도 누르며, 하고 싶은 말도 참고 산다.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한 단식, 곧 목숨을 걸고 굶주리는데, 그마저도 조롱당할 때, 그조차 우린 견디고 또 견디고.

즐거울 때는 순간, 우리 몸 대부분이 수분이듯 우리

삶 대부분은 고통이나 슬픔이다. 그러나 삶은 견뎌내는 일이다. 좋아하는 고기도 누는 즐거움보다 기다리는 견뎌의 시간이 백배 천배 더 많고, 내가 지지하는 팀이나 정당이 지는 경우가 많아서 승리까지 오래도록 견뎌야 하는 시간이 부지기수다. 화무십일홍이요 권불십년, 인생은 원래 견뎌내라는 인생 팔고(八苦)가 무겁고 또 무겁다.

반면 고통을 꼭 나쁘지 않다고 평가한 이도 있다. 17세기 의사 토마스 시덴햄(Thomas sydenham)은 극한 상황에서 자연이 사용하는 현명한 도구가 어느 정도 염증과 고통이라며 어느 정도 고통이 우리 건강에 유익하고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신과 의사 안나 램케(Anna Lembke)는 소소한 불편도 참지 못하는 현대인의 고통 기피증이 역설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느끼게 한다고 오늘날 세상을 고통 사회(pain society)로 분석한다.

더는 못 참겠다고 이제 더 참고 살지 말자고 하는 순간, 고통은 사라지기보다 오히려 속속 배가된다.

자객 열전에서 자객들은 자신을 인정해 주는 주군을 위해 수많은 시간을 견디고 기다린다. 의로운 복수 이면에는 오랜 견뎌이 자리하고 있다. 충환은 사랑을 위해 고문을 견디고, 충신은 나라를 위해 고통을 견딘다. 고전의 기본 모티프다. 물론 학생들이 합격까지, 어부들이 만산까지, 산모가 출산까지 그 모든 견뎌의 중량을 비교할 수 없지만, 육체적 고통을 통해 정신적 고양을 할 수 있다면, 눈 속의 매화처럼 고고하게, 삼보 일배의 결연한 자세로 오늘도 나는 견뎌내 참이다.

기고

글로벌대학30, 사립대학 연합이 활로다

는 지방 사립대학이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폐교된 지방대학과 그 인근이 불행히 사나운 '폐허'가 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대학에 가했던 '혁신 패스'의 역효과다. 만일 한 지방과 국소적 지료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

우리와 비슷하게 학생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은 2018년 과감한 대학 구조개혁을 전개했다. '2040년을 향한 고등교육의 그랜드 디자인'을 선언한 것이다. 단일 국립대학 법인의 복수 국립대학 운영과 사립대학간 학부 양도를 허용하고 국립·공립·사립 대학을 통합하는 법인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복수의 국립대학을 통합한 후 새로운 단일 국립대학이 기존 국립대학을 경영하는 것은 우리도 이미 추진하고 있으니 새로운 것은 없다.

하지만 서로 다른 사립대학 간에 효과적인 대학 경영을 위하여 학부 단위를 양도할 수 있게 한 것은 파격적이다. 지역 내 국립·공립·사립 대학간 강화된 연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법적 구속력과 소속감을 높여겠다는 것도 획기적이다.

현 정부도 과거와는 확실히 차별화된 방식으로 지방 소멸의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대학 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하고 지역 주도 고등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비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대학30 사업은 고등교

육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각자도생의 한계에 직면한 지방대학으로서는 글로벌대학30 사업이 지역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꿈씨'가 될 수 있다. 기회는 살려야 한다. 확실하고 유일한 해법은 상생과 협력이다. 지역 내 사립대학들이 연대하여 공동의 거버넌스 연합대학을 운영한다면 꿈과 현실이 만날 수 있다. 기존의 대학과 새로운 연합대학간 권한과 역할을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한다면 시너지 효과는 도시재생으로 이어질 것이다. 1+1은 3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자체가 믿고, 정부가 견인하고 있다.

대학 간 섹법에 따라 눈앞의 득실이 다르니 자칫 동상이몽으로 끼질 수 있다. 각 대학들은 규모와 역량에 따라서 하향평준화 내지는 흡수통합도 우려할 것이다.

하지만 2040 암울한 미래를 직시하자. 이대로 가면 지방 사립대학은 설 수 있는 길이 없다. 반면에 하나의 연합대학이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 못지않게 산다. 세상 이치가 그렇다. 이제라도 '제로섬 게임방'에서 나와야 한다.

각각의 대학이 갖고 있는 역량을 지역발전의 나침판에 맞춰 공동으로 키워야 한다. 모든 것을 공유할 때 공존할 수 있다. 사회적 흐름에 뒤처지는 분야는 가치없다. 매스를 가하자. 그게 살리는 길이다. 글로벌대학 30이 가리키는 방향도 그 곳이다.

社說

한달 앞둔 총선... 전략과 리스크 관리가 좌우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오늘로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 주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본격적인 본선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제22대 총선은 호남에서도 여러 가지 점에서 의미있는 선거다. 민주당 입장에서 광주에서 시작된 현역 교체 바람이 전남에서도 이어질지, 사천 논란 등 공천 파동이 수도권 등 타 지역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에 따라 제1당을 사수할지 여부가 관심사다.

국민의힘은 16년만에 취약지인 호남을 비롯해 전국 254개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낸 가운데 자신들의 희망대로 광주와 전남·북에서 각각 1석씩 '호남 3석' 확보가 가능할지와 3선을 지낸 이정현 후보의 당선 여부와 득표율이 관련 포인트다. 제3지대 선전 여부도 관심인데 어제 광주 광산구에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의 득표율이 최대 관심사다. 낮은 정당 지지율과 민주당 탈당으로 인한

'배신자 프레임'으로 인해 당선 가능성은 낮은 지적이 많다. 여기에 두자릿수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로 제3지대 선두를 달리는 조국혁신당이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른바 '지민비조' 전략으로 민주당 텃밭에서 교차투표를 유도하는 것도 호남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새로운미래 지지율 정체의 원인이자.

이번 총선은 야당의 '정권 심판론'과 여당의 '거야(巨野) 심판론'의 대결이다. 비례대표 투표를 놓고 범진보와 범보수가 연합 전선을 형성한 터라 어느쪽이 중도 표심을 얻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그러나 만큼 지금까지가 전략을 재검토하고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때다. 어느 총선때보다도 호남 유권자들이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 호남은 선거 때마다 '전략적 선택'을 통해 한국 정치의 균형추 역할을 해왔다. 호남정치 복원이라는 지역민들의 염원을 담아내는 정당이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

'빈곤 노인'이 절반... 고령화시대 지원책 절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령 인구는 97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9.0%를 차지한다. 전체 인구 대비 고령 인구 비율은 2015년 13.2%, 2020년 16.4%, 2022년 18.0% 등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절반 가까이 '빈곤 노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들은 연금을 합쳐도 가처분 소득이 연 804만원에 불과해 제대로 된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로 분석한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에 따르면 빈곤 노인이 전체 노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5.6% 달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 노인 빈곤율이 49.0%로 남성 노인 빈곤율인 41.2%보다 8% 포인트 정도 높았다.

또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도 상승하

는 경향을 보였는데,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초기 노인인 60~69세 빈곤율이 35%로 가장 낮았고 나이에 따라 점점 높아져 80세 이상에서는 55.6%가 빈곤노인이었다.

빈곤 노인의 가처분 소득 수준은 연간 804만원으로, 비(非) 빈곤 노인의 1797만원에 비해 2배 이상 낮았으며 연금·사회보장금을 제외한 빈곤 노인의 시장 소득은 연 평균 135만원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에 도달해 UN이 규정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17개 시도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8곳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최상위 수준이다. 국회와 정부는 노인 일자리·소득 지원과 관련한 법안 등 노인 빈곤 관련 법안과 정책을 세세히 검토해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국립광주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雙獅子 石燈 國寶 183호)은 조형미가 뛰어난 걸작이다. 총 북 보는 범주사, 경남 합천 영암사지 석등과 함께 통일 신라 후대에 등장한 쌍사자 석등 가운데 하나다. 두 마리의 사자가 가슴을 맞댄 채 화사석(火舍石, 등불을 밝히는 공간)을 떠받치고 있어 쌍사자 석등으로 부른다.

조선총독부 기수 오가와 게이키치(小川敬吉)는 1931년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을 조사한 후 "석탑은 신라 말기의 걸작이다. 등롱(燈籠, 석등)은 쌍사자로 구성된 일품이다. 둘

광양의 보물

다 국보로서 가치가 충분하다"는 보고서를 남겼다. 당시 쌍사자 석등은 3층 석탑과 함께 중흥산성 폐사지에 나란히 세워져 있었다. 조선총독부 고적 조사위원회는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유물이 내지(일본 본토), 기타로 유출될 것을 우려해 등록하여 보존하고자 한다"고 보물로 지정 의결했다. 문화재 반출로 악명 높았던 일제가 아니라니 하기도 보호에 나선 사례다.

진정한 국립익산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최근 광주박물관이 발간한 '광양 중흥

산성 쌍사자 석등'에 기고한 논문에서 이 석등을 860~870년대에 도선국사가 조성했다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도선국사가 출가한 도량이 사사자(四獅子) 삼층 석탑이 있는 구례 화엄사인데다가 그 불교 미술을 섭렵한 덕분에 석탑과 석등을 충분히 만들 수 있었다는 추정이다. 도선이 입적하기까지 35년 동안 머물렀던 광양 옥룡사와 직선 거리로 2.5km 떨어진 중흥산성 절터에 석등이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전북 남원 실상사와 3.19km 떨어진 백담암에 수

철 화상이 조성한 통일신라 석탑과 석등이 있는 것과 맥락이 같다.

진 연구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도선과 수철은 스승의 선택(禪師)을 잊지 못해 각각 옥룡산문(玉龍山門)과 실상산문(實相山門)을 열었다. 이들이 각각 산문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조성한 게 쌍사자 석등과 고북형(鼓形, 북을 옆으로 옆어 놓은 모양) 석등이라는 것이다. 이번에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에 대한 새로운 견해가 발표된 것을 계기로 후속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 광양의 유일한 국보가 재조명됐으면 한다. /윤영기 사회·체육담당 부국장 penfoot@